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공동대표 딘 베이커(Dean Baker)와의 대화

글/사진 홍 일 표
|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 ·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2007년 5월 24일,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http://www.cepr.net)〉를 방문해, 공동대표인 딘 베이커(Dean Baker) 박사[1]와 약 1시간 30분 정도 인터뷰를 하였다.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경제 및 사회정책들에 대한 민주적 토론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비교적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주목받는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진보적 싱크탱크이다.

특히 이 연구소는 다른 싱크탱크들과 달리 수준 높은 전문연구성과의 제출과 더불어 대중교육(public education)의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중(informed public)'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의 공유, 각종 계산 프로그램의 제공, 적극적 강연 활동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교육, 경제, 에너지, 지적재산권, 라틴 아메리카, 여성, 사회보장, 국제노동시장 등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하지만, DC 소재의 많은 싱크탱크들과는 달리 외교 및 안보 분야는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2]. 인터뷰에 응했던 딘 베이커 대표는, 현재 미국의 정치가 '돈'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실험과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한 대중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소의 활동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이들이 자신들의 언론인용 빈도와 웹트레픽 규모 등을 단체의 재정규모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3]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정책연구센터는 다른 어떤 싱크탱크들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기부관련 전문조직인 채리티 네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에 의해 '별 4개'의 평점을 부여 받아 재정운영이 가장 건전한

싱크탱크로 선정되었음을 선전하고 있다[4].

이처럼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는 비록 규모가 작고 비교적 짧은 연혁의 싱크탱크지만,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언론 전략 등을 통해 미국 내의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일표(이하 홍) : 베이커 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된 것은, 오늘 자리를 같이 한 이인엽씨의 소개 덕분입니다. 이인엽씨는 현재 조지 워싱턴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지난해에 이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일반적인 차원에서 미국 싱크탱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딘 베이커(이하 베이커) :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잘 제도화된 중도적 성격의 싱크탱크, 예를 들자면 브루킹스연구소나 도시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5]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이들의 인적 충원이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을 브루킹스연구소나 도시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정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요[6]. 물론 이들 연구소에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워싱턴의 권력 구조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규모면에서 좀 작고, 극단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덜 중도적이고 두 정당 체제에 덜 구속받는 싱크탱크들이 있습니다. 중도좌파 진영의 경제정책연구소나, 보수파 진영의 헤리티지재단이나 케이토연구소 등을 들 수 있겠지요. 이들은 브루킹스연구소나 도시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들보다 정당 결합력이 약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바꾸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들에 비하면 브루킹스연구소 등은 중도적이고 매우 신중한 처신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심받게

---

1) 딘 베이커(Dean Baker) 박사는 주거, 미시경제,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 메디케어, 유럽 노동시장 등의 전문가이며 *Social Security : The Phony Crisis(with Mark Weisbrot), The Conservative Nanny State : How the Wealthy Use the Goverment to Stay Rich and Get Richer, The United States since 1980* 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경제관련 보도에 대해 비판적 커멘트를 제공하는 그의 블로그(Beat the Press, http://www.prospect.org/csnc/blogs/beat_the_press) 또한 유명하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issues&Itemid=22

3) 이 자료((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7&Itemid=77)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의 미디어 인용횟수와 재정 규모, 정치적 지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다.

4) http://www.charitynavigator.org/index.cfm/bay/search.summary/orgid/10172.htm

5) 2006년 10월부터 정식 명칭이 피터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 G.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anl Economics)로 바뀌었다. 창립자인 피터 페터슨을 기리기 위함이라 하는데 이름변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조하면 된다(http://www.iie.com/publications/newsreleases/namechangepr.pdf). 필자가 만나 본 많은 연구원들과 기자들, 국회 스탭들은 공통적으로 이 국제경제연구소를 미국의 대표적인 주류 싱크탱크로 칭하고 있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 당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6) 이것이 바로 미국 싱크탱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회전문(revolving door)' 현상이다. 한국의 낙하산 인사나 일본의 '아마쿠다리' 도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일반 사기업까지 그 대상에 포함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직업관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되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증권거래세(tax on stock traders)' 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영국의 경우 1%를 부과하는 비교적 높은 세율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여러 군데서 의견을 밝혀 왔습니다[7]. 하지만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길 원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그리고 월스트리트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다음 정권에서 일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누군가 다음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신은 이전에 증권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한 적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라고 질문을 받는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정책연구소나 우리 연구소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진 1〉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가 자리한 건물(4층)과 건물 1층의 좁은 입구[8]

홍 : 방금 경제정책연구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미리 자료조사를 하며 느낀 점은, 이곳과 경제정책연구소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베이커 :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것입니다. 나 역시 경제정책연구소에서 7년간 일했었고, 우리 연구소의 죤 슈미터(John Schmitter)나 헤더 부쉐이(Heather Boushey)도 거기서 일했으니까요. 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만 죤과 헤더는 경제정책연구소가 내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인 〈일하는 미국의 현황(The State of Working America)〉[9]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시니어급 연구원 5명 가운데 3명이 거기 출신이니 상당히 강한

7) 가장 최근에 딘 베이커가 쓴 흥미로운 글 가운데 하나가 "Loser Liberalism Versus Power Populism", (*truthout*, 14 May 2007)이라는 글인데 여기서도 딘 베이커는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증권거래세에 침묵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8) 낡은 건물의 좁은 입구를 통과하면 왼편에 유럽식 엘리베이터가 나온다. 철조망 같은 문을 손으로 당겨 닫으면 아주 천천히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기 시작한다.

9) 앞서 경제정책연구소 토니 애버건 연구원과의 인터뷰 당시에도 이 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노동계급의 현황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2년에 한번씩 집적되어 발표되고 있다.
(http://www.stateofworkingamerica.org/)

연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많은 부분에서 오버래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이슈들에서 비슷한 정치적 원칙과 입장을 가진 관계죠. 하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그들이 하지 않는 연구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처방약의 특허분야, 저작권 문제 등의 대안을 만드는 문제 등에 대해 저희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10].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제정책연구소에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이죠[11].

홍 : 처음에 싱크탱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서 헤리티지재단을 브루킹스연구소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베이커 : 무엇보다 헤리티지재단은 매우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보수적인 싱크탱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언론에 대해 보도 자료를 내면서 보수적 의제들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지요. 많은 이들은 헤리티지재단에 대해 보수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들은 그에 상응하여 보수적인 이념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들이 중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발언만을 계속할 경우에는 "당신은 왜 여기 있나? 헤리티지재단 같은데서 일하는 게 나을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사진 2〉 딘 베이커 소장(좌)과 린 어스카인(Lynn Erskine)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우)[12]

홍 : 그러면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구원을 뽑을 때 그런 이념적 성향을 감안하는가요? 웹사이트를 보니 5월 20일을 기한으로 해서 미디어 담당 연구원을

10)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issues&task=view_issue&issue=13&Itemid=22

11) 한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경제정책연구소 방문 당시 토니 애버건 연구원은, 경제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전문기술직국제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Technical Engineers)의 노조원임을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자신들 외에 10군데 정도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의 경우, 자신들이 이 상급노조에 가입되어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조원 행사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두고 있다.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8&Itemid=73)

12) 린은 영국 그린피스에서도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활동가이다. 필자의 인터뷰 요청을 딘 베이커 대표와 곧바로 연결시켜 주고 우리의 방문을 맞이해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다.

새로 뽑으시는 것 같던데요.

베이커 : 채용 분야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뽑는 미디어 담당자의 경우엔 일정한 수준의 이념적 공유가 있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언론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역할인 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재정담당자에 대해선 그런 능력보다는 "횡령을 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웃음)

홍 : 이번에 지원자는 많았습니까?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었나요?

딘 : 예, 수백 명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원서를 보낸 경우일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등록해 두었다가 채용공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서 우리에게 지원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른 연구원들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홍 :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의 연구원과 스탭 숫자는 총 17명이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보면 "단위 예산 당 가장 많은 언론 보도와 인터넷 방문자 숫자" 를 기록하고 있는 매우 '효율적' 인 조직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계시던데요[13]. 이러한 언론 전략을 포함하여 무엇이, 어떻게 '효율적' 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커 :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회에 민감(opportunistic)' 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집값 거품(housing bubble)' 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집값이 내려갈 것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많은 이들이 집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 하며, 그것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집값 거품' 에 대한 우리의 연구결과에 대해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시하는 심각한 사례들에 대해 기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14].

---

13) 2006년 10월에 작성된 내부 보고서인 "Cost Effectiveness of 25 Most Cited Think Tanks : CEPR is #1 in Media Hits and Web Traffic"에 따르면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의 경우, 전체 언론 인용 회수나 웹 트래픽 숫자의 절대 규모는 다른 유명 싱크탱크들에 뒤지지만 재정 규모 대비 인용 빈도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가장 효율적인 싱크탱크인 것으로 확인된다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77&Itemid=77). 예를 들어 언론 인용 빈도의 경우, 전체 빈도만 본다면 브루킹스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케이토연구소 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재정규모 대비로 계산해 보면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가 1위, 후버연구소가 2위, 경제정책연구소가 4위 등으로 나타난다. 웹 트래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케이토연구소와 헤리티지재단, 그리고 미국진보센터, 외교관계평의회 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용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재정규모로 계산해 보면,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가 1위, 미국진보센터 2위, 케이토연구소 3위, 경제정책연구소 5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14) 딘 베이커가 2007년 2월에 작성한 보고서 "2007 Housing Bubble Update: 10 Economic Indicators to Watch" 는 현재 미국의 '부동산 거품' 상황을 10개의 경제지표와 최신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가 최근에 우리 연구원인 죤 슈미트와 연구조교 레베카 레이(Rebecca Ray)가 작업하여 발표한 "휴가가 없는 나라(No-Vacation Nation)"라는 연구보고서는 언론의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조교인 레베카의 공이 컸어요. 다른 나라들의 휴가 실태를 조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휴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막상 이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별로 없었고, 실제로 미국의 휴가 기간은 매우 짧으면서도 제대로 보장조차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15]. 이에 비해 다른 선진국들에선 휴가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요. 우리는 흩어져 있는 정보 쪼가리들을 모으고 사람들에 의해 간과된 사실들을 가지고 논쟁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경제학계에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든 것은 연구하지 마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연구를 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회보장의 민영화' 문제입니다. 민영화가 과연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돈을 주식시장에 갔다 쓰려고만 할 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제대로 계산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홍 : 그러면 그런 연구주제들의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베이커 : 일단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주제의 경우에는 저와 별도로 상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현재 10개 주의 10개 싱크탱크와 주창그룹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연구에는 3~4명의 연구조교가 필요한데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사람과 재단들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재단이 씨앗자금을 대 주기로 해서 그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 : 홈페이지를 보면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 재정의 80% 이상은 재단에서 후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16]. 그러면 나머지 20%는 개인들인가요?

베이커 : 예, 대부분은 개인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후원이 약간 있고, 제가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해서 버는 돈도 일부 포함됩니다.

홍 : 앞서 말씀하셨던 주 단위 싱크탱크들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housing_indicators_2007_02.pdf).

15)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의 1/4은 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미국 이외의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총 20개 나라의 휴가실태를 조사하여 미국 저소득 계층의 노동 및 여가 실태를 고발하였다 (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working_time_2007_05.pdf). 재미있는 것은 레베카 레이가 연구조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제1저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16)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Itemid=14

베이커 : 그것은 저소득 가구들에게 돌아가야 할 구조적 이익에 대한 연구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격차 메우기(bridging the gap)'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17]. 이 연구는 일리노이 주의 세금 환급(tax credit) 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라던가, 두 아이를 가진 년 20,000불 이하 가정, 자산 규모 40,000불 이하 등,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항목들이 매우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해당 정보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주 단위 싱크탱크들과 공동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 1〉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가 주도하는 연대활동(CEPR Initiative)

홍 : 그것은 경제정책연구소가 꾸리고 있는 연구네트워크(Economic Analysis and Research Network, http://www.earncentral.org/)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베이커 : 언(EARN)의 경우, 그것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이며 공동으로 단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 : 그러면 그것은 예산 및 정책 우선 센터(Center for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비슷한 것인가요?

베이커 : 스파이(SFAI, State Fiscal Analysis Initiative, http://www.statefiscal.org/)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이 왜 이걸 따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들은 주로 예산(budget)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죠. 반면에 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 최저임금이나 노동조건 등 보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예산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두 조직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들이 완전히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격차 메우기(Bridging the gap)' 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언(EARN)과 스파이(SFAI)와 중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지역 싱크탱크는 우리 네트워크에 속하기도 하고 다른 네트워크에 속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최대한 서로 건설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 : 한국에서도 가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분야에 여러 단체들이 각자 활동을 벌이거나 한 단체가 비슷한 성격의 네트워크에 중복가입하기도 하구요.

베이커 : 다른 연구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습니

17) http://www.bridgingthegaps.org/

다.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18]. 하지만 여러 조직들이 동시에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데 용이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정보도 생산될 수 있고 해서요.

홍 : 그렇군요. 그런데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의 경우 다른 연구소들보다도 대중 교육(public education)에 대한 강조를 더욱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거나 중요한 원자료(raw data)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구요[19].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요?

베이커 : 물론 그것은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경제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이 구입하자면 비싼데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림 2〉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의 온라인 계산프로그램

홍 : 그렇게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좀 독특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베이커 : 3~4년 전에 저희가 데이터 공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독특한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재단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데이터를 구입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정책연구소에서도 그와 비슷한 걸 하고 있고, 점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소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20]. 실제로 이런 자료와 프로그램의 경우 약간의 테크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자신들만이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복잡하게만 하려고 하지요. 저희들은 소수만이 특정의 정

---

18)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issues&task=view_issue&issue=19&Itemid=22

19)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예산, 집값, 사회보장혜택 등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항목과 숫자를 기입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Online Calcurator,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Itemid=19).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들에 대해 정부발표가 있은 당일 오전 11시에 해당 통계자료의 의미를 분석한 짧은 논평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Data Bytes, 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8&Itemid=77).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원자료(raw data)들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두어 누구나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http://www.ceprdata.org/other/index.php).

20) 예를 들어 경제정책연구소 역시 '데이터존' 이라고 하여 전국 단위, 주 및 지역 단위의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계산프로그램을 게재하고 있다(http://www.epi.org/content.cfm/datazone_index).

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부패'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홍 : 그래서 '정보가 충분이 제공된 시민(informed citizen)'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군요.

베이커 :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증권거래세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증권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금에 대해 많은 세금을 매기고 있고, 영국에선 1%나 되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day trader)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21] 그걸 이유로 다른 세금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 자체를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미국엔 많습니다. 주식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또한 월스트리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정치가들 역시 이런 세금 신설을 나서서 주도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모두들 좋은 제도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동안 들어 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1조 6천억 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그것을 충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서라도 증권거래세의 도입 주장을 보다 널리 알려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홍 : 그러한 주장에 대해 울림이 좀 있습니까?

베이커 : 글쎄요. 좌파들이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5년간 정권을 잃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바뀌고 있지?" 보통은 세상이 바뀌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보수파들이 오히려 엄청나게 세상을 바꿔왔던 것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보수파들, 부자들은 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세금 부과도 하지 말고 말이죠. 반면에 자유주의자들(liberals)은 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 동안 미국의 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정부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이 바로 제가 작년에 출판한 『보수적인 보모의 나라 : 어떻게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늘이기 위해 정부를 이용하였나』(*The Conservative Nanny State : How the Wealthy Use the Goverment to Stay Rich and Get Richer)*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그저께 버클리에서 토론을 했는데 약 70~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많은 블로거(blogger)들이 제 책에 대한 리뷰를 쓰고 퍼 나르고 있음

21)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 크루그만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 브루킹스연구소, 주류 신문 등에서도 우리의 주장들을 언급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씩 울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홍 : 흔히 진보적 싱크탱크 소속의 연구원들의 경우 주류 싱크탱크 연구원들에 비해 정책결정권자들과의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책결정권자들과는 주로 어떻게 만나는가요? 그리고 제가 만나 봤던 수많은 연구원들, 기자들, 국회 스탭들의 공통된 의견이, 책이나 정책브리핑 자료, 기명칼럼 등 소위 공식적인 방식 이외에 비공식적인 접촉이 정책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정책담당자에게 전화를 한다던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말이죠.

베이커 : 우리 역시 정책담당자들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몇 주요한 의원 및 의원 보좌관들과는 매우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저희는 매우 돈독한 사이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그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인의 휴가 문제' 와 같은 쟁점에 대해선 의원들이 입법의제로 다루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오기도 했고요. 그 외에 한 달에 2~3회 정도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접촉 방법입니다.

홍 : 의회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정책형성에 있어 얼마나 효과적인 것입니까?

베이커 : 청문회에서의 증언은 솔직히 '상징적' 인 효과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르면 가는 걸 원칙으로 하곤 있지만, 실상 대부분의 청문회라는 것이 의원 한두 명이 앉아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몇 명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몇몇 중요한 청문회를 제외한다면 많은 경우 의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관심을 해결하는 수준에서 청문회를 열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널리 알리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 당연히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 예상하고 저를 불러 청문회를 열기도 합니다. "저런 반대의견도 있지만 우리 주장이 더 옳다" 라는 식의 보여주기식 쇼를 연출하는 것이죠.

홍 :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나요?

딘 : 그건 결국 돈과 권력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위해 2천 5백만 불을 모을 사람과 강한 끈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과연 밥 루빈[22]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와 가깝게 지

22) 미국 최고의 재무장관 가운데 한명으로 손꼽히는 로버트 루빈(Robert E. Rubin) 전 재무장관을 말한다. 그는 골드먼삭스에서 26년간 근무하며 공동회장까지 승진하였다. 그 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의장,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씨티그룹 공동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낼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밥은 엄청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돈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죠. 돈과 마찬가지인 것이 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노총(AFL-CIO)의 표겠죠. 경제정책연구소의 경우엔 노조와 강한 연계를 맺음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1993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는 캐나다 식 '단일 지불자(single payer)' 방식의 건강보험 시스템[23]을 주장하는 의료단체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주장 자체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것을 따를 경우 그건 정치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뒤에 움직이는 큰돈(big money)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홍 : 그와 같은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딘 : 이틀 전 버클리에서 강연할 때, 단일지불자 방식의 건강보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토론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필리버스터(fillibuster :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60% 이상의 찬성투표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현실의 정치가 쉽게 변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역동성을 발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대한 민주화, 새로운 민주주의가 인터넷에서 실험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정치가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활동을 이미 벌이고 있죠.

예를 들어, 얼마 전 뉴스거리가 되었던 반(反)힐러리 광고가 있습니다[24]. 수억 명이 시청하고 있는 슈퍼볼 경기 시간대에 방영했던 광고인데,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재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올 때, 한 여성이 해머를 던져 그 독재자의 화면을 부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매킨토시가 아이비엠을 이기게 된다는 그런 광고였죠. 하지만 이번에 유투브를 통해 공개되었던 동영상은 독재자 대신 힐러리 클린턴이 화면 속에서 중얼거리고 있고 그것을 한 여성이 해머를 던져 파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미 수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투브의 영향력은 점점 더 엄청나게 커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여전히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돈에 좌우되는 정치, 2천 5백만 불의 선거자금을 각종 의약품 회사, 보험회사로부터 모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죠. 이처럼 인터넷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

23)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체계 하에서 보험금의 지급이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다양한 건강플랜과 보험회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가장 시장주의적이라고 하는 미국의 보험제도가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행정관리비용이 소요된다고 비판받는다. 전체 보건의료비의 약25%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관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일 지불자 체계를 도입할 경우 그 비용을 1/2로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24) 유투브 사이트에선 이 동영상을 아직 접할 수 있고 원작 광고의 동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http://www.youtube.com/watch?v=6h3G-lMZxjo). 나중에 이 동영상의 제작자가 오바마 후보의 지지자로 알려져 오바마 후보 역시 홍역을 치루게 되었다.

〈사진 3〉 공동대표 딘 베이커와 마크 와이스브롯의 연구공간(좌)[25]과 다른 연구원의 책상

홍 :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스펜인어, 포르투칼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번역한 것들이 있던데요[26]. 어떻게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베이커 : 솔직히 그들 중 대부분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료들의 스페인어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다른 언어 자료들의 경우,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것들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해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위해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스웨덴어로 번역한 경우, 제 아내가 덴마크인이라 조금 알기는 하지만 번역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번역인가를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웃음)

홍 : 저는 그런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이 이 연구소의 세계화 전략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미 방문해 보았던 카네기 기금이나 케이토연구소의 경우, 그러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 게재와 그것을 넘어 다른 언어로 된 홈페이지 자체를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경우 홈페이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애쓰고 있고 아예 해외 지부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딘 : 저희들의 경우 그렇지는 않고 임시적(ad hoc)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페인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라틴 아메리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꾸준히 다뤄 오고

25) 딘 베이커와 더불어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를 대표하고 있는 마크 와이브롯(Mark Weisbrot)은 경제성장, 무역, 국제금융기구, 라틴 아메리카 등을 주전공으로 하는 미시간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이다. 그는 스페인어에 능통하여 스페인어로 된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연구소 자료들 가운데 스페인어 번역물이 많은 것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필자가 많은 싱크탱크들을 방문하면서 공동대표끼리는 물론 두명 이상의 연구원이 공동의 연구공간을 쓰고 있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진보적 성향의 싱크탱크답게 연구소 내부 공간의 배치나 분위기 모두 상당히 자유롭고 조금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었다.

26) 스페인어 번역은 상당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반면(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75&Itemid=43), 다른 종류의 언어들의 경우에는 번역된 분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http://www.cepr.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192&Itemid=100).

있고 그들 사회의 복잡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스페인어 자료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동대표인 마크 와이브롯 역시 스페인어를 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4년 전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선거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현지 신문을 꾸준히 읽는 과정을 통해 저희가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홍 : 홈페이지를 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시니어 겸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associate)으로 되어 있던데요. 장하준 교수는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한데 그가 어떻게 이곳 〈경제 및 정책연구센터〉에 관여하게 되었나요?

베이커 : 장하준 교수와 처음 만난 건 약 12년 전쯤 어느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조만간 그의 책이 나올 예정인데 그 책에서 그는 '예외적 성공사례로써의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서 들은 얘기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유복한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나 19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당시 그의 집엔 냉장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하준 교수 집에 놀러 왔던 친구들이 다들 "이 흰 상자는 뭐냐?"라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1960년대 한국과 지금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면 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따라 배워야 할 모델인가? 한국의 예외적 성공의 원인과 더불어 그것이 안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밝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인엽 :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유학생활을 하며 관찰한 미국 정치는 좀 이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돈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은 높지만 철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며, 거대 미디어의 여론 장악력은 엄청나고요. 이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독일인 친구와 얘기를 나눴을 때 그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념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는 두 개의 정당에 의해 정치가 독점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인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제3정당이 진입하지 못하고 두 정당에 의해 정치가 완전히 독점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960년, 70년대에 시민권 운동, 반전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미국 사회가 보수화되고 변화를 추동할 사회운동의 힘이 약해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이커 대표의 최근 책 *The United States since 1980*(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을 소개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결국 1980년대, 다시 말해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베이커 : 그렇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시작과 더불어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진보 정치의 기초가 되는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하고 파괴했습니다. 그는 과거 다른 공화당 대통령들이 하지 않았던 조치들을 마구 취했습니다. 그는 파업에 참여한 이들을 해고시켜 버렸고 그들의 생존을 파괴했습니다. 정권을 장악한 직후 항공사 노조 파업이 발생하자 군대를 동원하여 대체노동력으로 사용했고

법에 반하는 정도의 노조 탄압을 자행했습니다[27]. 이후 미국의 거대 회사들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버리는 짓을 벌입니다.

아이젠하워나 닉슨 등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다른 대통령들을 훨씬 능가하는 조치들을 취했고 많은 분야에서 '민영화(privatization)' 조치를 강도 높게 진행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사회운동을 지원하던 법적 구호(legal aid) 제도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시민권 운동과 반전운동을 거치며 변호사가 된 이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소송이나 정치적 약자들에 대한 정력적인 법률구조활동을 벌여 왔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Service)의 예산삭감과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보수파들로 임용하는 등 진보적 사회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28]. 그리고 비단 레이건 대통령에 의한 기반 악화뿐만 아니라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양상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들의 급여와 연구비의 대부분이 기업들로부터 지원됨으로써 돈에 종속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버드, 예일, 미시간 등 소위 일류의 대학들조차 기업과의 강한 연계를 확보하지 못하면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홍 : 그렇다면 앞서 이인엽씨가 언급했던 미국의 두 정당 시스템이 갖는 정치적 한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이커 : 두 정당 시스템 자체가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29].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돈입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출마했던 억만장자 로스 페로(Ross Perot) 아시죠? 그는 어느 두 정당에 소속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정당 밖' 의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돈을 쓰면서 다른 두 후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해 여름 갑자기 선거를 그만 두었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당시 로스 페로 후보 때문에 더욱 불리해진다고 느낀 공화당 쪽에서 딸이 결혼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30]. (웃음)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의 하원의원 데니스 쿠치니치(Dennis Kucinich)[31]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언론 보도는 거의 접할 수가 없지요. 그는 선거자

---

27) 1981년 8월 미국 항공기 관제사들의 파업이 이루어졌을 때, 레이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48시간 내 직장복귀를 명했고, 이때 명령을 따르지 않은 12,500명의 관제사들은 모두 해고당했다. 또한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12년간 취업금지를 시켰다. 이로 인해 노조(PATCO)는 해체되었고 이들은 3,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12년 후인 1993년 클린턴 대통령 시기에 이르러서야 취업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28) 하지만 딘 베이커의 이러한 평가와는 반대로, 헤리티지재단이나 미국기업연구소 등 보수적 싱크탱크들의 웹사이트에서 '레이거니즘', '레이건식 보수주의'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칭송과 존경의 글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29) 두 정당 시스템에 대해 정책연구소의 존 커배너 대표는 그것이 미국 진보운동에 있어 커다란 장벽이라고 설명한 반면(http://www.makehope.org/info/info_GBT_0320.php?menu=article1&leftmenu=1), 경제정책연구소의 토니 애버건(http://www.makehope.org/info/info_GBT_0426.php?menu=article1&leftmenu=1)과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의 딘 베이커는 모두 그것을 핵심적인 어려움이라 보지 않고 있다.

30) 로스 페로는 선거일 한달을 앞두고 다시 재출마를 선언하였다. 1992년 선거 당시 그는 19%에 이르는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31) "평화 후보자" 라 불리는 데니스 쿠치니치는 2003년 간디 평화상을 받았고 이라크 전쟁과 미국애국자법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해 온 대표적인 진보적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오하이오 주 하원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http://en.wikipedia.org/wiki/Dennis_Kucinich).

금을 거의 모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만약 돈만 있다면 공화당에서건 민주당에서건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므로 두 정당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존재하는 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홍 : 그렇게 돈이 문제라면, 돈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딘 : 글쎄요. 그걸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보험 회사들입니다. 이런 사적 보험 산업이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려 나가야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미디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또한 돈 많은 이들, 예를 들어 힐러리 상원의원이나 오바마 상원의원, 에드워드 전 상원의원과 같이 많은 선거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전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들 얘기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고, 수많은 블로거(blogger)들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 블로그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구요. 실제로 주류 언론에 속한 사람들은 블로거들에 의해 자신들이 상처받는 상황을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주류 미디어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2~3년 이내에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결합되어 인터넷을 통해 텔레비전을 보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겠지요. 종이신문의 위상이 크게 타격을 입었던 것처럼 텔레비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적 웹사이트들이나 블로그들이 가진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류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보다도 그 가능성은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 :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진보적 싱크탱크들의 미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베이커 :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고 진보적 싱크탱크들을 필요로 하는 공간(room)이 여전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류의 전문가들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거래세 문제나 집값 거품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 우리는 더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고 제안을 하고 있는 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홍 :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 여름까지 미국에 더 머물 예정이니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베이커 : 좋습니다. 저 역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